



34년 전 영광 서울올림픽 성과 전세계에 알린다

10월 서울에서 열릴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은 국내외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0월 18~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단이 주최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후원한다.

공단은 올림픽 레거시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포럼 주제도 ‘Next G Through Olympic Legacy’이다. 올림픽 레거시를 환경·사회·거버넌스(ESG)로 구분해 다룬다. 한

국민체육진흥공단 10월 18~19일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 개최

환경·사회·거버넌스 분야 구분

경 부문에서는 ‘올림픽 레거시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힐레함메르, 시드니 올림픽 측이 발표한다. 사회 부문에서는 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 현황(IOC 레거시팀), 올림픽 레거시의 Next G(파리 등), 미래 세대에 올림픽 가치 전파(LA, 벤쿠버 등)이 다뤄진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런던 올림픽 관련 기관이 올림픽 레거시의 ESG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선다. 학술적 토의가 아닌 올림픽 레거시 관리주체의 현장 목소리를 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 프로그램들이다.

공단은 이번 포럼이 역대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인 서울올림픽의 유·무형 레거시가 이루어 한 성과와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형 레거시는 서울올림픽에 사용된 경기장(Venues), 올림픽공원, 도시 인프라(건축물 등), 올림픽여행 3110억 원 등을 가리킨다. 무형 레거시로는 국민 자긍심,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 전환, 동서화합과 평화, 생활체육 활성화, 민주주의

발전, 대한민국 문화 전파, 세계화에 대한 국민의 시각 확대, 올림픽 가치 등이 있다.

물론 최고의 레거시는 사실상 공단이다. 공단은 서울올림픽 레거시를 기반으로 1989년 설립돼 지금 까지 발전해 왔다. 경기장과 비롯한 올림픽공원 등 유형 레거시의 관리, 운영에서 IOC가 인정하는 우수사례로 꼽혔다.

공단은 포럼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올림픽 레거시로 올림픽 가치를 넘어서 스포츠를 이용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적인 방안 제시할 계획이다. 각국 올림픽 레거시 관리주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 활성화, 한반도와 인류 평화에 기여할 목표도 세웠다.

22일 만난 공단 관계자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인도 등 저개발국과 국제 대회 개최 회망도시 등에 전파해 서울올림픽 레거시 성공 사례를 전파시키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발전 방향을 언급했다. 아울러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도록 저개발국가 청소년 지원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포럼으로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 대회로서 서울올림픽의 성과를 국내외에 전파하고 글로벌 스포츠계에 ESG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박종민 기자 min@sporbiz.co.kr

“박지영 언더파” 65%

골프토토 스페셜 18회차 예상

국내 골프 팬들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2(총상금 8억 원) 1라운드에서 박지영(26·한국도티신탁)의 언더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내다봤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제육진한부추김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4일 포천힐스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2 1라운드를 대상으로 한 골프토토 스페셜 18회차에서 전체 참가자의 65.29%가 4번 선수 박지영의 언더파 활약을 예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1번 선수 박민지(24·NH투자증권)와 5번 선수 이기원(23·NH투자증권)이 각각 65.16%와 60.68%의 언더파 예상을 기록했다. 이어 유해란(56.07%), 이예원(43.51%), 홍정민(36.25%), 정윤지(36.16%)는 전망됐다.

지정 선별 1라운드 예상 스코어에서는 이기원(32.87%), 박지영(32.17%), 유해란(30.52%), 이예원(25.99%), 박민지(24.27%)가 1~2언더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선수인 정윤지(34.82%)와 홍정민(28.59%)은 1~2오버파에서 1순위를 기록했다.

골프토토 스페셜 게임은 지정된 5명 혹은 7명의 프로골퍼의 1라운드 타수대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타수대는 5언더 이하, 3~4언더, 1~2언더, 0(이븐), 1~2오버, 3오버 이상 등 총 6개 구간으로 나뉜다. 1라운드 최종 타수대를 모두 맞힌 사람에게는 해당 회차의 배당률에 배당금을 책을 급한 만큼 적중상금이 지급된다. 김호진 기자 hoo106@sportbiz.co.kr

쌍둥이의 데칼코마니 농구인생

형 조상현 LG 감독 선임 이어
동생 조동현 현대모비스 지휘
프로 입단·온퇴도 같은 해에



조상현·조동현 형제 감독 KBL 제공

조상현·조동현 형제 맞대결'을 펼친다.

현대모비스 구단은 20일 ‘유재학(59) 감독이 사퇴와 함께 총감독을 맡기로 함에 따라 조동현 수석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동현 신임 감독은 대우 제우스, SK 빅스, 부산 KT(현 수원 KT)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은퇴 이후 현대모비씨 코치로 앉았다. 이후 KT 감독을 거쳐 다시 현대모비스 수석코치로 돌아와 유 감독을 보좌해 왔다. 그는 “현대모비스는 KBL 최다 우승 구단, 명문 구단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책임을 맡은 만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현 감독의 쌍둥이 형인 조상현 감독은 지난 4월 29일 LG 지휘봉을 접았다. 약 두 달 만에 동생인 조동현 감독이 현대모비스 사령탑으로 승격하면서 2022~2023시즌 프로농구에선 쌍둥이 감독이 대결하는 전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조상현·조동현 형제는 똑 닮은 외모처럼 ‘데칼코마니’ 같은 농구 인생을 살았다. 물은 서대전조~대전증~대전고~연세대에서 함께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웠다. 1999년 나란히 프로에 데뷔했

다. 조상현 감독은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광주 골드뱅크에 입단했고, 조동현 감독은 8순위로 두나 유니폼을 입었다. 프로 무대에서 14년간 선의 경쟁을 펼쳤다. 조상현 감독은 통산 12시즌 동안 113득점, 1,990리스트, 15 리バ운드를 기록했다. 조동현 감독은 정규리그 559경기에 출전하여 통산 평균 7.7득점, 1.9어시스트, 2.1리바운드의 성적을 남겼다.

2012~2013시즌을 마친 뒤에는 나란히 은퇴해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오랜 기간 지도자 경험을 쌓은 물은 물은 2022~2023시즌을 앞두고 나란히 프로농구 사령탑에 올랐다.

프로농구에선 하웅(29·전주 KCC)·허훈(27·상무), 이승준(이동준·이상 은퇴) 등 형제 선수 간 맞대결이 펼쳐졌으나 형제가 감독으로 지면 대결을 벌인 사례는 없었다. 물은 서대전조~대전증~대전고~연세대에서 함께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웠다. 1999년 나란히 프로에 데뷔했

이정인 기자 iji2018@sportbiz.co.kr

오늘의 경기

골프 코오롱 한국오픈(천안 우정힐스 CC)

타권도 2022 아시아선수권대회(9시·춘천 반암체육관)

육상 전국선수권대회(9시·경선종합운동장)

사격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대회(9시·창원국제사격장)

테니스 제1차 한국실업연맹전(충주단금대테니스장), 제57회 전국주니어선수권대회(순창공설운동장)

아이스하키 전국 고등부 선수권대회(10시~나루 제스노아이스링크)

볼링 청주컵 프로대회(14시·오창반도프리임볼링경기장), 협회장배 전국대회(9시·전주스타/라온볼링경기장)

데이원 KBL 가입 유보… 타 구단이 자료 보완 요청

내일 오전 안건 재논의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를 인수한 데이원스포츠의 한국농구연맹(KBL) 가입 승인이 유보됐다.

KBL은 “22일 오전 8시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개최된 임시총회 결과, 구단 운영 계획 등 일부 사안을 보완해 24일 오전 8시에 데이원스포츠의 신규 가

입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시총회에는 데이원 측 대표자와 다른 9개 구단 단장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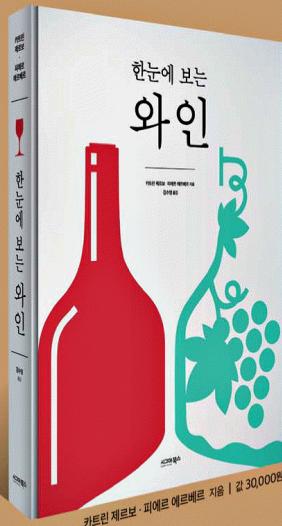
데이원 측은 장·단기 구단 운영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타 구단들과 공유했다. 하지만 일부 구단이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결국 보완 후 회의가 한 번 더 열리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주 KCC 이지스 구

단주와 양양 KGC인삼공사 단장 교체안이 승인됐다. 따라서 KCC 구단주는 기존 민병삼 대표와 사에서 정재훈 대표 이사로 변경됐다. 정재훈 신임 구단주는 “KCC가 KBL 최고 명문 구단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KGC인삼공사 단장은 전상식 상무에서 서정일 상무로 변경됐다. 박종민 기자 min@sporbiz.co.kr

와인의 탄생 과정부터 테이스팅 방법 까지

와인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하다!



와인 초보자부터 와인 전문가까지 모두를 위한 스마트한 와인 가이드!

◎ 그럼으로 정리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 와인의 A부터 Z까지 단계별로 설명한다!

◎ 와인 초보자를 위한 기초 상식을 알려준다!

◎ 와인 전문가를 위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 와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다!

◎ 와인에 대한 뒷이야기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